



“완주 구암리 폐소각장 주민 수용성 확보 우선”

김관영 도지사, 김호은 전북환경청장과 면담

인근 지역 주민 건강 악화·환경오염 우려 제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신속 조성 등 현안도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우려 해소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5일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완주군 봉동읍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시설이 삼봉지구와 둔산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내에서 입지 적절성과 설치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가 지속되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시설 설치 검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절차 이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에 일일 189.6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자의 연간 처리계획량이 완주군 관내 폐기물 발생량보다 많아 외부 폐기물의 대량 반입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전북환경청과 완주군에 접수된 이후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주거지 및 공원지 등이 근거리에 위치한 입지의 부적절성

과 관내 폐기물 발생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 건립 필요성 부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완주군 역시 관내 사업장 발생 일반 및 지정폐기물량이 업체 계획량의 14%에 그치고, 인근 전주·익산 소각시설에서 충분한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늘 가까이서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김관영 지사는 △예산 확보 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신속 조성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사전 행정절차 처리 및 공동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도 당부했다.

김호은 청장은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군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오상근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회의실에서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완주군 봉동읍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장수 천천 삼고리 지석묘 긴급발굴 ‘박차’

군, 국가유산청 주관 긴급발굴비 지원사업 선정 국비 2000만원 확보… 도내 유일

장수군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5년 제2차 긴급발굴비 지원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매장문화재 유적보호를 위해 긴급발굴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천천면 삼고리에 위치한 고인돌(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 사업을 신청해 긴급성과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장수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명했고 현장확인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장수군은 그동안 노하리고분군, 호덕리고분군, 삼고리고분군 등에 대한 긴급발굴을 추진해 왔으며, 이 중 삼고리고분군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삼고리 고인돌(지석묘)은 삼고리고분군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240cm정도이며 너비는 185cm, 높이는 75cm로 상석(윗돌)은 방형



하늘에서 찍은 장수 삼고리 지석묘 전경.

(사진=장수군청 제공)

(네모)형태로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확

인됐다. 현재 경작지 사이에 방치되어 있어 훼손 가능성이 높아 장수군은 이를 사전에 보존하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긴급발굴조사 추진을 통해 우리 지역에 자리한 고인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이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그동안 군에 자리한 고인돌(지석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잔존현황은 7개 읍·면에 걸쳐 24개소 44기가 자리하며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자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156기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작 등의 주변요인으로 인해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수증 인증하면 선물이?’

도, 30일까지 이벤트… 내수 회복 도움 위해 마련

도내 사용 인증 시 추첨 통해 상품권 등 경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영수증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사업의 높은 참여 열기(지난달 31일 기준 신청률 90% 돌파)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신속한 쿠폰 사용을 유도하고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블로그, SNS에 접속해 네이 버퍼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지역 내 상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한 영수증을 촬영해 인증하면 된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인증 이벤트에 참여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총 200만원(1인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

정이다. 아울러, 5일부터 14일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집중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벤트 신청 방법, 참여 절차,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공지사항)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빠르게 사용하고, 영수증 인증을 통해 경품도 받으며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킴길

국산
국가유산
야행

2025 군산국가유산 야행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2025. 8.22.(금)~8.23.(토) / 8.29.(금)~8.30.(토)

18:00~22:00 군산 원도심 국가유산 일원

주최 군산시 후원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2025 군산국가유산야행